[먼저 / 훈련의 방향부터-] 해설을 읽기 전에 한 번 읽어 봅시다.

① 비문학 지문에는 잉여가 없다. 다만, 정보의 중요도만 있을 뿐이다.

② 지문 독해 방법들이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③ 지문의 흐름을 장악하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④ 지문의 구조가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⑤ 수능 독해는 '불완전한 정보 처리 과정'이다.

지문 '차분히' 읽고 전체 '독'해 → 선택지 읽기 → '이해' 후 판단 or 지문으로 돌아가서 부분 '독'해 후 판단

수능 독해는 '이해' 아니면 '기억'이다.

독해력 상승 → 공통감 형성 → 미시적 독해의 완성 → 독해의 끝

[수능 독해의 기본 : 독해력을 키우는 습관]

① 첫 문단은 무조건 감속이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 물리적인 첫 문단 / 흐름이 바뀐 후 첫 문단
- 첫 문단은 화제를 제시하거나, 방향을 암시한다.

② 각 문단 첫 번째 줄은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차분히 읽는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③ 차분히 읽다가, 어느 순간 머리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 문장, 문단들이 등장한다.
- 속도를 줄여 차분히 읽고 / 손을 쓰거나 / 일단 처리하며 내려가거나

④ 개념 정보 / 방향 정보 / 사전 정보 / 세부 정보

1) 개념 정보(C) : 중심 화제의 개념(이해해야 한다)

2) 방향 정보(D) : 글의 흐름, 방향(보이면 좋다)

3) 사전 정보(B) :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가 깔아주는 배경 지식(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억)

⑤ 지문의 구조가 보이는 순간 가속이 시작될 수 있다.(구조가 보이면 정보량이 줄어든다.)

⑥ 중요하면 물어본다.(중요한 정보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 공통감 형성
1) 문제 - 해결 2) 차이 3) 관계 4) 과정, 원리, 순서 5) 통시 6) 개념 - 사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5주차 독서 수업용 해설]

[이승모T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③ '독서'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를 비교하시면 더 좋고, [사고의 진화]라는 부분 역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5주차] 독서 수업 지문

2017학년도 수능 - 보험

[수업 내용 주요 사항]

독해력과 독해 방법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해야 한다면 독해력이 먼저다. 우리는 1년 동안 이 독해력을 서서히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곳은 흘러가고 괜히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각인을 하며 읽는다. 흐름을 타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은 시험장에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하는 것이다. 시험장에서는 그냥 읽느라 바쁘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무의식에 체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체화하기 위해 강사는 흐름이나 방향, 도구 같은 것들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문장이 -라서 중요하다.'라고 강사는 설명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이 문장이 -라서 중요하구나.'라고 학습한다. 학생들은 이것을 1년 내내 계속 듣고 비슷한 문장을 보게 된다. 그러다보면 실전에서 학생들은 '-라서 중요하겠다. 이건 중요한 정보야. 챙겨야지. 차분히 읽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중요해 보인다. 그냥 읽으면서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들면서 최대한 이해하고 최소한 각인하며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수업의 목적을 구구절절 설명했냐면.
오늘은, 독해력도 독해력이지만 도구라는 것을 조금 선명하게 설명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학습할 도구들이다.

[경제]는 '개념'(C)과 '관계'다.
- 관계는 반드시 출제된다. 경제에서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기억이다.
1) 비례, 반비례 2) 공식 3) ~ㄹ수록 ~하다
특히 2)의 경우 말을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지문 옆에 식으로 바꿔서 적어놓는 것이 좋다.

[법]은 '개념(C)'과 '사례'다.
- 개념에는 '용어', '원칙', '법 조항' 등이 있다.
- 사례를 들어주는 용어나 원칙은 무조건 출제되며, 법 지문에서 사례는 〈보기〉 문제와 같다. 사례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 조항은 쓰는 방식이 있다.
: 상황이 생기면, 일반 → 특수(예외는 출제) → 세부 조항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C)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첫 문단은 감속이다. 첫 문단에 '보험'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보험'의 개념을 원래 알고 있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문단이었겠지만, '보험'의 개념을 몰랐던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작이다.

② 「 」 부분을 사실 엄밀히 읽어보면, 다 같은 말이다. 즉 보험에 대해서 설명한 후,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재진술 문장이다. 표시는 해놨지만 우연한 사고 = 우연적 조건 = 조건부 상품 모두 같은 말이다. 실전에서 우리가 재진술을 찾으면서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진술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보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문단 다 읽으면 보험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C)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흐름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1문단에서 보험 얘기만 했다. 이제 뭔가를 더 좁혀가거나 구체화해야 한다. 2문단 첫 문장을 차분히 읽어봐라. 좁혀졌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방식으로 흐름이 옮겨간 것이다. 좁혀지는 흐름이라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기출 지문이 보통 이렇다. 처음에 넓게 쓰다가 점점 초점화하는 것이다. 산정 기준은 사고 발생 확률이라고 한다.

국어 영역

② 「 」 부분은 필자 주관적으로 볼 때 흘러가는 부분이다. 차분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다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사고들을 귀납적으로 모아서 사고 발생 확률을 따진다는 얘기고, 보험은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장받기 위함이라는 얘길 한 거다.

③ 역시 좁혀가고 있다. 이제는 공정한 보험으로 초점이 옮겨왔다.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기댓값이 일치해야 한단다.

④ 이 문단에서 사실 강요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말을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손을 쓰는 것이 좋다. 어차피 '식'은 관계를 공식화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어본다. 관계는 기억이다. 그러니까 적어두는 것이 좋다. 어떤 학생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적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읽는 것보다 미리 적어두고 식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판단이 훨씬 빠르다.

보험금의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이것은 유기적인 것인데, 적어두고 나니까 보험금 기댓값에 대해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던 것 같다. 추가로 적어두면 더 좋다.

1)보험료 = 보험금의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관계는 출제된다. 말을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부탁한다.

⑤ 보험료율의 개념이다. 개념이 하필 식으로 제시되었다. 물어볼 거다. 적어두자. 물론 식으로 제시되었으니까 뭐하러 적냐고 묻는 학생이 있을 거다. 관계는 기억이다. 쓰면 기억 더 잘 난다. 적는 데 오래 안 걸린다.

⑥ 하필 적어뒀더니 하나가 더 마지막에 파생된다.

2)보험료율 = 보험료 / 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

⑦ 관계를 적어두면 이렇게 다른 정보와 연결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식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어 편하다. 또한 적다보니 알게 되는 사실도 있다. 사실 1)과 2)는 같은 식이었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 」 부분은 흘러가는 부분이다. 독해력이 좋거나, 익숙한 내용이어서 차분히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기억이라도 남기면서 흘러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흐름 없는 기억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하자는 거다. 읽어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흐름이라도 잡으면서 기억하자는 거다. 일단 이해를 위해 「 」 부분을 사례로 설명해 보겠다.

② 분명히 사실과 다른 예시임을 밝혀둔다. 이승모라는 사람이 매일 같이 술을 세 병씩 먹고, 밥 먹듯이 흡연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던 어느 날, 이승모는 인생이 걱정되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보험 설계사가 가져온 서류에는 술을 얼마나 먹는지,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승모는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끊었다고 표시했다. 당연히 설계사는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결국 승모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되었다. 5년 후, 승모는 암에 걸렸고,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전국에 10,000명 있다고 하자. 그러면 보험사는 10,000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보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고, 진짜 가입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다면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흐름이라도 타야 한다.

③ 「 」 다음에 흐름을 탈 수 있게 해줬다. 결국 우리가 구구절절 읽은 것은 문제란다. 당연히 해결이 제시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제시될 4문단 첫 번째 줄의 고지의무가 법적 해결이 될 것이다.

④ 의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흐름 있게 기억이나 남겼으면 좋겠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C)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고지 의무는 법적 해결책이다. 그리고 개념 정보까지 제시했다.

② 「 」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아까 3문단 「 」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면 이해하면 된다. 「 」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다. 흐름을 타고 있다면 '해결됐구나.' 정도 하면 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①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③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④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

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정 법 규정 및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자. 법은 개념과 사례이다. 특정한 개념을 제시하고 사례를 들어준다는 것이다. 출제되는 법 개념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법률 용어, 원칙, 조항이 그것이다. 이중 법 조항을 설명할 때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잘 기억해두면, 설령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흐름 있는 기억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한 이 흐름이 보이면 무엇이 중요한지 정보의 중요도 역시 변별할 수 있다.

② 법 조항의 흐름은 이렇다. 상황 → 일반 → 특수(예외) → 단서(세부) 즉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사람을 죽이면, 교통사고가 나면 등) 그때의 일반적인 규정을 먼저 설명한다. 이후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단서 조항을 써주기도 한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수한 상황이고, 특히 예외적인 상황은 무조건 출제된다.

③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상황이 생긴 거다.

④ 보험사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단다. 일반적이라는 느낌이 나면 된다.

⑤ 「 」 안에 들은 ①, ②, ③, ④는 보험사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의 일들이다. 정보량이 많으니 특수한 거 나올 때까지 그냥 흘러가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흐름을 알고 있으니 기억이나 하면 되는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필자의 경우 ③과 ④는 기억에 남았다. 자극적이었기 때문인데 ③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라서 줬다 뺐나보다 했고, ④는 손해 배상 청구는 못하고 해지권'만' 할 수 있다길래 기억에 남았다.

⑥ 계약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자마자 특수한 상황이 생겼다고 인지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중요하다. 차분히 읽으면 알겠지만, 보험사와 가입자가 같은 잘못을 해도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⑦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단서 조항이다. 즉 세부 정보이므로 그냥 흘러가면 된다.

⑧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엄청나게 특수한 예외다. 기억이 날 것이다. 그리고 출제될 것이다. 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인과가 없으면 일단 보험사는 돈을 지급하긴 하라는 것이다. 단 고지 의무 위반한 사항으로 인해 언젠가 사고가 또 날 수 있으니 해지권도 부여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돈도 주고 해지권도 인정받는 경우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이다. 무조건 출제된다.

⑨ 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예외'라서 중요하다고 근거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사실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앞에 차분히 흘러가다가, 사고와 고지 의무 위반이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각인하게 되어 있다. 또 이것이 각인되면 알아서 151번 문제를 잘 풀게 되어있다. 중요하면 물어본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① 앞문단의 내용과 연결해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 =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으로 읽을 수 있었다면 아주 좋다.

독서 1번 문제 답 : ③

③	O (정답)	지문 구성을 보면 1문단에서는 '보험'의 개념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고지 의무'를 소개한 후 4, 5 ,6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서 2번 문제 답 : ④

①	X	선후 관계이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청약해야 하고 보험사가 승낙해야 한다. 물론 해지의 상황은 다르지만, 일단 앞뒤를 바꿔 출제한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선택지는 그냥 말이 안 된다. 되게 웃긴 상황이 되는 게 해지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청약하고, 가입자가 승낙하면, 보험사에서 '해지해도 되겠니?'하고 가입자가 '응. 해도 돼.' 이런 상황이 되기에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지 의무 위반을 통해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보험사의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X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③	X	사실 출제자는 같은 보험료를 내면 동일한 보험금을 내는 지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보험금을 내려면 사고가 일어나야 한다. 일종의 전제 추론이다. 즉 사고 발생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④	O (정답)	4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제공한 '중요한 사항'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승낙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X	그냥 지문으로 일치 수준으로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는 선택지다.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는 것도 맞고,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주는 것도 맞다. 즉 각각의 사실은 맞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한다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 인과 관계가 잘못되었다.

국어 영역

독서 3번 문제 답 : ⑤

'공정한 보험'의 특성, 즉 공식만 지문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정답을 고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적어두지 않고 지문으로 돌아가 머리로 해결하려 했다면 분명히 ④와 같은 선택지에서 실수했을 수 있다. 공식은 적어두고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면 된다. 관계는 물어본다.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험 공동체 A, B' : '공정한 보험' 적용

'사고 발생 확률' A = 0.1 / B = 0.2

공정한 보험 보자마자 그냥 지문에 적어뒀던 식으로 눈이 가면 된다.

1) 보험료 = 보험금의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2) 보험료율 = 보험료 / 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

①	X	'공정한 보험'이 적용될 때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험료가 2배로 오르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올라야 한다.
②	X	①번 선지와 방향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선지이다. 먼저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X보험금)의 값이다.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함께 높아지고, '공정한 보험'에서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므로 보험료도 높아진다.
③	X	'공정한 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보험료율'이 성립한다. A의 사고 발생 확률과 B의 사고 발생 확률은 0.1과 0.2로 서로 다르므로, 둘의 보험료율도 0.1과 0.2로 서로 다를 것이다.
④	X	보험료 = 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이다. A의 사고 발생 확률은 0.1이고 B의 사고 발생 확률은 0.2이다. 보험금은 동일하므로 α로 상정하면, A의 보험료는 0.1α이고 B의 보험료는 0.2α이다. 즉 A의 보험료는 B의 보험료의 1/2배이다. 적어두면 실수하지 않는다. 다만 적어두지 않으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읽은 후, 머리로 계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식은 적어두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⑤	O **(정답)**	정답 선지에서 요구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성립한다. 따라서 A와 B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같아야 한다.

독서 4번 문제 답 : ①

①	X **(정답)**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O	4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O	지문에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이 수단이 바로 고지 의무이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가진 위험의 정도, 즉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O	3, 4문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고지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O	고지 의무는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로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독서 5번 문제 답 : ④

법 지문의 <보기>는 거의 사례이다. <보기>의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 : 보험사 / B : 보험 가입자

B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A는 계약 해지권을 사용한 뒤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이다. 기억하자. 중요하면 물어본다. ①, ②, ③ 선택지는 특수한 상황, 즉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묻는 것이다. ④는 고지 의무와 사고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즉 예외적인 상황을 묻는 것이다.

①	X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때 해지권이 배제된다는 것은 보험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보험사 A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②	X	계약 당시 보험사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해지권이 부여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	고지 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두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때 보험 가입자 B가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든, 고의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든 둘 다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④	O **(정답)**	보험 가입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는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B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⑤	X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 B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사 A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영역

독서 6번 문제 답 : ①		
①	X **(정답)**	ⓐ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의 의미이다. 그런데 ①에서의 대비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O	ⓑ와 선지 모두,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O	ⓒ와 선지 모두,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O	ⓓ와 선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O	ⓔ와 선지 모두,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힘들 현장 강의 학생들을 위해서 과제에다 한 편의 시를 소개 했었는데요.
우리가 한수달이라는 교재를 매개로 만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까
조금 오글거려도 좋은 시를 한 편 소개해 보겠습니다.
1년 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학생들과 흘러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 변하겠지만
난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이수동, '동행'

언제나 저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지난 주 독서 분석지에도 적어두긴 했는데 조금 민망하지만 홍보해봅니다.
저희 조교들이 계정을 만들어준 거라 계정 이름이 조금 민망하지만.
www.instagram.com/mo.mo_land/
팔로우 하시면 지금은 미흡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올려 볼 생각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